

제30차 아태전기통신표준화 포럼(ASTAP)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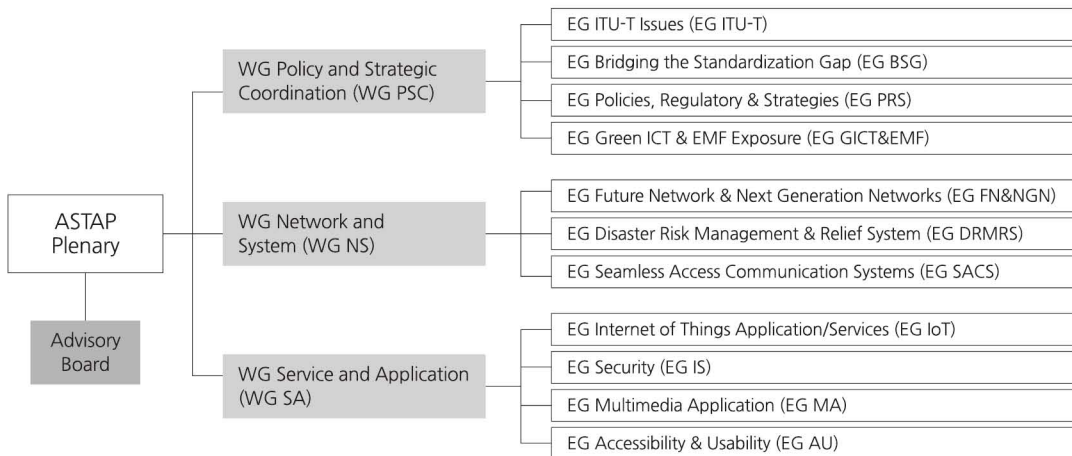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공업연구관
김기훈 TTA 표준화본부 융합기술표준단 책임연구원

1. 머리말

2018년 5월 21일~25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STAP 30 회의는 APT 18개 회원국, 17개 기관멤버 총 121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21명(국가대표 19명, 기관멤버 2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는 총 16건의 국가기고서의 발표와 GICT&EMF, 사용성 및 접근성, 미래네트워크의 3개 전문가그룹(EG) 의 장단을 수행하였으며 EMF, 접근성, 정보보호 분야 이슈 논의를 주도하였다.

2. ASTAP 개요

아태전기통신표준화포럼(ASTAP, Asia-Pacific Telecommunity Standardization Program)은 정부 간 조약기구인 APT의 7개 작업프로그램(Work Program) 중 하나로 표준화 관련 협의체로 1998년에 설립되었다. 주요활동으로는 표준화 관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원의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표준화 이슈에 관한 지역 입장 조정, 역내 표준화 활동 관련 의견·정보 교류, 지역 표준 개발 및 ITU 등과 같은



[그림 1] ASTAP 총회, 작업반 및 전문가 그룹 조직도

국제 표준화기구에 역내 공동 기고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ASTAP 회의는 최근 매년 1회 정도 개최되고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총회 산하에 작업반 3개와 각 작업반별로 3~4개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총회 및 산하 그룹에 7명의 의장단을 수임하고 있다.

3. 주요 회의 내용

ASTAP 회의에서 논의되는 표준화 분야는 ITU-T 연구반(SG)에서 다루어지는 분야와 많이 일치하고 있으며, 상호 관련되어 아태지역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로 생성되기도 하고 ITU 활동 대응을 위한 아태지역 차원의 공동 기고서도 개발한다. 다음은 30차 회의에서 진행된 ASTAP 주요 전문가 그룹의 회의 결과이다.

3.1 IoT 응용 및 서비스 전문가 그룹

ASTAP 26차 회의부터 진행되어 온 아태지역 스마트시티 사례 및 기술 보고서 개발이 이번 회의에서 최종 승인 완료되었다.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실증사업도 사례로 포함되었으며, 아태지역 국가들의 스마트시티 구축 시 참조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신규 작업 항목으로는 산업계 워크숍에서 일본 측에서 발표한 스마트시티 지속발전목표(SDG) 우선순위 보고서 개발과 아태지역 교통사고 기록 및 분석방법 개발 2개 분야를 추진하기로 하여 승인하였다.

3.2 미래 네트워크 전문가 그룹

ITU-T 미래네트워크 연구반인 SG 13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ICT 인프라와 서비스에 관한 신뢰성 평가지수에 대한 권고안(Y.trust-index)이 개발되고 있다. 본 권고는 아태지역에서 신뢰성 있는 ICT 인

프라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이를 APT 가이드라인으로 작업할 것을 제안하였고 차기 회의에서 신규 작업 항목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본 전문가 그룹은 ITU-T 연구반 13에서 개발한 권고 중 아태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APT 가이드라인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ITU-T 연구반 13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권고를 APT 가이드라인으로 재생산하여 아태지역에서 홍보하고 시장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유익할 것이다.

3.3 접근성 및 사용성 전문가 그룹

지난 29차 회의에서 아태지역 국가 모바일 접근성 현황 조사 작업 항목이 신규로 승인되었으며 이의 작업 추진을 위해 설문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 작업 항목으로 아태지역 통신 중계 서비스(TRS,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의 현황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작업이다. 말하기와 듣기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TRS 서비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개발할 계획이며,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TRS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3.4 재난위기 관리 및 구조시스템 전문가 그룹

재난 발생시 차량을 활용한 정보통신 시스템 APT 권고 작업은 26차 회의 시 일본이 제안하여 신규 작업 항목으로 승인되었다. 29차 회의 시 권고가 최종 승인되어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회람결과 승인에 필요한 정족 수에 미달(9개국/10개국)하고 반대 의견(중국)이 접수되어 이번 회의에서 재논의되었다. 중국은 재난통신 시스템 간의 호환성을 위해 3GPP, IEEE 관련 권고를 참고 문헌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총회에서 수정 권고

안이 재승인되었고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되게 되었다.

3.5 그린 ICT 및 전자파 인체안전(EMF exposure) 전문가 그룹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태지역 전자폐기물 및 희소금속 관리 및 표준화 APT 보고서가 승인되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태지역 국가의 전자폐기물 및 희소금속 관리 현황, 지역 국가의 협력과 적용되고 있는 모델을 공유하기 위해 작업이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의 김범성 박사(생기원)와 태국의 아트 프레차 박사(NBTC)가 공동 에디터로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8차 회의에서 초안 승인 후 이번 회의에서 작업이 완료되었다. 그 외 전자파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 정보 활용체계 기술 APT 보고서 개발 작업은 지난 29차 회의에서 신규 작업 항목으로 채택된 후 구체적인 작업 내용 목록이 이번 회의에서 완성되었다. 본 회의에서 기존 RF 대역에 AM 방송대역, 전원주파수 대역을 측정할 수 있는 ELF EMF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파 정보 활용체계 기술 보고서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측정 및 정보제공 절차, 시스템 등 많은 부분이 완성되어 차기 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이다. 회의장 분위기에서 아태지역 개도국들은 전자파 인증제도, 시험방법, EMF 참조 기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 이를 다룰 수 있는 신규 작업 분야 선정이 요구된다. 차기 회의 시 참석자 대상으로 GICT & EMF 그룹에서 다룰 관심분야에 대해 조사를 하여 참석자의 관심에 호응하고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우리나라는 ASTAP 회의에서 정보보호분야, IoT,

미래네트워크, 전자파 인체안전 분야에서 의장단 활동과 표준화 보고서 발간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보안, 전자파 인체안전, 접근성 등 일부 분야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아태지역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APT에서 유일하게 전기통신 표준화 영역을 다루고 있는 ASTAP 회의는 국외 참석자 대부분이 정부와 정부 유사기관 소속이라 이곳에서의 활동은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홍보 및 시장 개척을 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 정부 차원에서도 미래 아태지역 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과 신뢰를 기반으로 꾸준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일본의 APT 활동을 보면 분담금 납부에 있어서 단연 최고이며, 개도국 대상 ICT 분야 연수 프로그램 지원과 ASTAP을 통한 기술 및 표준화를 보급하는 등 개도국과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요직으로는 APT 사무차장, ASTAP 의장, WG 의장단(의장 1석, 부의장 2석) 및 EG 의장단(의장 6석, 부의장 2석) 등 다수 수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WG 의장 1석/부의장 1석, EG 의장 3석/부의장 4석) 활동에 비해 월등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과 산업분야와 정부차원의 전략적 필요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APT ASTAP 활동에서 기여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고 전략적 기반으로 주요 요직의 확보와 협력활동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차기 ASTAP 31차 회의는 2019년 5월 중국 서안에서 IoT 및 이머징 기술에 관한 산업워크숍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계워크숍은 '사물인터넷 응용 서비스 및 이머징 기술' 주제로 행사가 준비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국내 스마트시티, IoT 응용 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 스마트시티 및 IoT의 아태지역 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